

사용자무성의로 장기파업 악화

장기대 파업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장기파업사업장 노동쟁의는 분쟁상태가 오래 지속됨으로써 요인이 복잡해진다. 사용자들이 교섭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참조)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노조가 없는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집단해고 시키고, 노조를 숙아내고 비노조원중심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구로공단의 동국실업(대표 최승주)은 휴업후 생산라인 기계를 기존관리자들에게 내주고 하청업체를 세우게 한 뒤 본사 생산라인은 가동중단한 채 휴업

하다가 남아있던 노조원 33명 전원에게 집단해고 통보를 보냈다. 회사측은 이들의 퇴직금 등 임금을 각 노조원의 본적지 법원에 공탁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를 핑계로 공장을 부동산 투기 재물로 민주파 당선되자 '유세시간 무노무임' 트집

다. 회사측이 쟁의중 만들어낸 하청공장은 구로동 독산동 대림동 일대에 있는 성천 성우 영창 등 우 해원 등 5곳으로 노동자들에게 의해 확인됐다.

인천의 한독금속은 회사측이

성남의 해중실업에 공장을 매각함으로써 고용승계문제로 장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중실업은 한독금속을 15억여원에 사들였는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못들은 채 하다가 땅값이 올라 시가 25억여원으로 평가되는 한독의 재매각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중실업측은 자신들의 통제업종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업종전환을 위해 한독을 매입했지만 노조가 강성이고 설비가 낡아 가동을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부가 특별기동반을 파견하기로 선택한 장기노사분규사업장 중에는 부산의 동산금속이 포함돼 있는데, 동산의 경우 장기노사분규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산금속노조 부산지부에서는 지난달 지부장 선거에서 민주파

년 11월부터 시작된 단체협약쟁신을 21차까지 교섭하다가 회사측이 일방중단하고 올 4월 임금교섭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측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올 3월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측이 위원장구속 후 강중철 권한대행을 선출했으나 그를 해고시킨 후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교섭을 기피하고 있다.

부천의 한국배아정밀의 경우는 일본인 사장이 철수협박을 하면서 단체협상과 임금인상 교섭을 성의있게 진척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계줄 제조업체인 배아정밀은 연속 흑자를 기록해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부천지역금속노조분회인 창전사에서는 작년에 이미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경단협 지침 등으로 단협을 지연시키면서 사업주측이 날인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전면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작년 10월에 쟁의발생신고를 했으나 파업에 들어가지 않다가 올 입투와 맞물리면서 8월초 부분쟁의에 돌입했는데 회사측은 직장폐쇄후에도 비조합원과 사무직을 이용해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의 장기파업들은 임금없이 살 수 없는 노동자들보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1차적으로 법·제도적 장치가 보장해야 하고 이는 노동자들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은숙 기자)

〈전국 장기파업 사업장〉

— 9월 5일 현재 비공식 집계

업 체	투쟁일수	현황 / 문제점	요구사항	성 격
(서울) 크라운전자	280	휴업후 집단해고	일터보장	업종전환(휴폐업) 노조파괴
동국실업	90	휴업후 하청생산 집단해고(33명)	집단해고 철회	휴폐업 노조파괴 노조파괴
광림전자	120 여일	7. 31. 직장폐쇄후 노조 배제 공장가동	해고자 복직, 노조사수	노조탄압
일신통상	82		정상가동	노조탄압
(인천) US마그네틱	26	재미교포 체불후 도미 (채산성 안 맞는다)	정상가동 또는 체불임금지급, 생계대책	자본철수 (노조기피)
한독금속	300 여일	해중실업 매입 (노조때문에 고용승계 안된다)→다시매각기도	정상가동, 고용승계	공장매각 (매각자업종 전환, 재매각기도)
진성전자	3개월 정도		노조활동보장 해고자 복직 임금인상	노조탄압
로버트쇼		작업중	단협이행 전임자 임금지급	
(대구) 남선물산	104	7차례경찰투입 8명구속·20여명고소고발	임금인상, 노조사수	노조탄압
(부천) (주)홍양	101	직장폐쇄, 하청생산 제2공장(강원도)가동	무노동무임금철회 노조활동보장	노조탄압
보성전자	44	입투기간중 19명 고소 고발 →구속자석방투쟁으로	노조활동보장 구속자석방·일직복직 부당징계위해제	노조탄압
한국배아정밀	3개월 이상	2개월전 직장폐쇄 (협상안됨)	단협·임금인상	
창전사	30여일	합의된 단협에 사측날 인거부 89. 10. 쟁의발생 신고→90. 8. 부분쟁취	단협체결 전임자임금지급 임금인상	직장폐쇄 (후 가동중)
(안양) 안양전자	443	폐업후 강원도 횡성에 서 사업재개	폐업철회 (일터보장)	노조파괴 폐업
(평택) 삼정펄프	70	준법투쟁후 직장폐쇄→자동파업 (2명구속)	임금인상 구속자석방	
(부산) 동산금속	작업중	준법투쟁중	근무형태변경철회, 무노동무임금철회(선거유세 시간) 조합원정직철회	노조탄압
(마산) 코리아타코마	21	89. 11월 부터 협상안됨 89. 3월부터 임금체불 쟁의에 들어가지 않고 마산시청 노동부 항의 방문 등	임금체불청산, 단협개신	노조탄압
(의정부) 신도택시	2개월 이상			
현대중공업	조업중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